

戶長公墓碣後識

記曰君子念始之者也又曰禮不忘其本矣始與本君子之所不可忽也東萊即我
기왈군자념시지자야우왈예불망기본의시여본군자지소불가홀야동래즉아
 先始祖本貫之鄉而又有其衣冠之藏焉吾宗人鄭彥燮公理宰是府既三年而政
선시조본관지향이우유기의관지장언오종인정언섭공리재시부기삼년이정
 通人和以其暇致隆於先墓道增置祭田修墓下宗楔又立麗牲之石而自爲之
통인화이기가치용어선조묘도증치제전수묘하종계우립려생지석이자위지
 文以歷舉先祖忠厚謙恭質儉之德使百代之下有使攷焉若公理者可謂念始者
문이력거선조충후겸공질검지덕사백대지하유사고언약공리자가위념시자
 也不忘本者也庶幾乎追遠而民德歸厚矣公理追遠之孝如此而不能移而爲忠
야불망본자야서기호추원이민덕귀후의공리추원지효여차이불능이이위충
 施之於爲國謀則非活孝也奚足尚哉東萊爲一路大關防而古有城而今頽圯歷
시지어위국모칙비활효야해즉상재동래위일로대관방이고유성이금퇴비력
 數百年而名臣碩輔之來莅者何限皆有意於設築而未之果今公理一朝而剏新
수백년이명신석보지래리자하한개유의어설축이미지과금공리일조이창신
 之其坂築雉牒之殷井幹樓櫓之勒倉庾府庫之實屹然增重我南面之保障凡其
지기판축치첩지은정간루노지능창유부고지실흥연증중아남면지보장범기
 政述之卓卓可觀類如此雖既歸之後餘威振于殊俗遺化浹于窮邊所以流於本
정술지탁탁가관류여차수기귀지후여위진우수속유화협우궁변소이류어본

관지향자장여응산봉해동기장구차진활효야희기상야기여대착어사매임유
 貫之鄉者將與湧山蓬海同其長久此眞活孝也噫其尚也已余代斲於斯每臨有
 愧愧不及之歎而尤有欽於其追遠之孝搨其碑文閣之其上仍識數語于其左

계축동래부사래주지 호장공이십일대손호동계
 癸丑東萊府使來周識(戶長公二十一代孫號東溪)

◆ 호장공묘갈(戶長公墓碣) 후지(後識)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처음을 생각한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예(禮)는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처음과 근본은 군자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래(東萊)는 바로 유라 시조(始祖)의 본관(本貫)의 고장이요 또 묘소가 있는 곳이다. 우리 종인(宗人) 정언섭(鄭彦燮) 공이 이 동래부를 다스린 지 이미 삼년인데 정사(政事)를 하는 여가에 선조의 묘도(墓道)를 고치고 제전(祭田)을 늘리고 묘소 아래에서 종계(宗契)를 조직했으며 또 비석을 세우고 자신이 기문(記文)을 쓰면서 두루 선조의 충후(忠厚) 겸공(謙恭)하고 질검(質儉)하신 덕을 들켜 백세 이후까지도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과 같은 분은 처음을 생각하고 그 본을 잊지 않은 자로서 거의 먼 조상을 추모(追慕)하여 민덕(民德)을 후하게 한다고 하겠다. 공의 먼 조상을 추모하는 다스림이 이와 같은데 그 충성심을 나라를 위해 시행하지 못한다면 살아 있는 효(孝)라고 할 수 없으니 어찌 승상할 만하겠는가?

동래는 한 방면의 큰 관문(關門)이어서 옛날에는 성(城)이 있었으나 지금은 퇴락(頽落)한 채 수백 년을 지나왔다. 그 사이 이곳을 거처간 수많은 명신(名臣) 석보(碩輔)들이 모두 다시 쌓을 마음을 두고도 쌓지 못하던 것을 공이 하루 아침 사이에 계획해 제대로 된 성을 새로 쌓고 높다란 창고들을